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5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사례연구 10: 학교에서의 딜레마: 장애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언제 지원할 것인가

연구배경:

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술지에서 연구팀은 많은 경우에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과정, 사회생활 그리고 다양한 교내 활동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을 목격했다. 연구팀은 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7명의 장애 아동의 생활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겪는 경험이 개인과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배제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샘(필명)은 13세 소년으로 수많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의 세계관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의 교육을 후원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려웠다. 샘은 읽기 능력은 좋았으나 학교수업의 사회적 상황과 측면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불쾌해 하거나 화를 내곤 했다. 그의 행동 때문에 공부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나오게 됐고 이 때문에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시골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그를 친절하게 맞이해 준 교장선생님 덕분에 이곳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다닐 수 있었다. 연구팀이 그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를 3개월간 다닌 시점이다.

윤리적 문제: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 학생들은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고 있었고, 샘은 사회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밖 복도에 있었다. 특히 이 시간에 남학생들은 바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서로 밀치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한 남학생이 샘을 밀치고 그의 책을 뺏으려 하면서, “저능아”라고 불렀다. 샘은 남학생에게 소리를 질렀고, 몹시 기분이 상했다. 샘은 교실에 들어가 조교 옆자리인 교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교사가 그날의 수업 목표를 설명하는 중에, 샘은 옆에 있는 조교에게 그를 놀렸던 남학생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불평했다. 교사는 샘에게 집중하라고 말했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교사는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문을 가리키면서 나가 달라고 했다. 샘은 교실을 박차고 나가 학습지원센터로 향했다.

여기에서 연구자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책임, 연구 대상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와 관련 질문들이 떠오른다. 연구자는 얼마나, 또 어떻게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따라야 할 지침은 사전에 구성해 놓은 연구 계획서를 참조할 수 있다(예를 들어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성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권장하거나 해당 성인이 연구자를 대신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전 준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간혹 연구자들이 ‘직감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선택방법:

따돌림은 많은 경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이를 알아채거나 이해하기 힘들며,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샘은 적극적으로 또래 집단에 소속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아동들의 따돌림은 샘의 참여와 행복에 큰 걸림돌이었다. 샘의 교사는 해당 상황과 샘의 불안 증세를 잘못 이해했고, 그로 인해 샘은 수업에서 배제되고 배울 기회를 잃어버렸다. 따돌림은 신고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서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따돌림이 샘을 학습과 참여의 기회로부터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다. 연구자에게는 몇 가지 대안이 있었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연구자는 그저 ‘병풍’ 같은 존재이다);
- 복도에서 아동들이 샘을 괴롭히는 현장에 개입한다(교사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
- 샘이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를 직접 교사와 논의하고, 샘에게도 이를 알린다;
- 샘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한다(또는 취하지 않는다).

선택방법:

연구자는 아동들이 샘을 따돌린 일이 있은 후 한동안 교실에 머물다가 샘이 있는 학습지원센터로 향했다. 샘에게 이 일을 교사에게 알릴 것을 권유했지만 샘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샘은 보복이 두려워 교사가 이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교사에게 이 일을 얘기하고, 몇몇 아동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샘은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데 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연구팀은 교사에게 말하지 않는 방향과 샘이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샘은 연구자가 사회과목 교사에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에 동의했다. 복도에서 따돌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보편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교사가 다른 학교 교사와 사례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상황에 따라 연구자의 역할과 해당 청소년을 옹호하는 역할을 번갈아 맡았다. 연구자의 역할과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책임감과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감이었다. 연구는 연구자의 호기심을 위해서가 아닌, 잠재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Munford & Sanders, 2001). 이 상황에서 연구자는 샘이 겪게 되는 피해와 혜택을 동시에 고려했다.

1. 이 상황에서 연구자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 병풍과 같은 역할만 할 수 있다;
- 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사의 의견, 질문에 대답하며, 샘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상황을 관찰한다;
- 교실에서 또 다른 교사의 역할을 한다;
- 청소년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들을 옹호한다;

2. 연구자는 옹호자의 역할(중립적이지 않은)을 수행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이 적절한가?

3. 연구 아동에 대한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그리고 연구자로서 샘과 같은 아동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연구자는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에 개입해야 하는가?
- 연구자는 학생이 교실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가?
- 사건 이후 학생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적절했는가 아니면 연구자는 바로 교사를 찾아갔어야 했는가?

참고문헌

Munford, R., & Sanders, J. (2001). Interviewi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M. Tollich (Ed). *Research Ethics in Aotearoa New Zealand: Concepts, practice, critiques* (pp. 99-111). Auckland: Longman.

자료제공: Jude MacArthur, Senior Lecturer, Institute of Education, Massey University, Palmerston North, New Zealand.

사례연구 11: 아동과 함께 한 윤리에 대한 토의

연구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윤리적인 지침을 추구하기 위해 아동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가 된다. 특히 네덜란드 출신의 Stichting Alexander가 진행한 '아동 학대 철폐를 지지하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대한 독일의 연구 프로젝트'처럼 어려운 주제일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서 연구팀은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적 지침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아동에게 중요한 윤리적 지침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윤리에 대한 역할놀이를 아동 연구 그룹에서 진행했다. 아동들은 연구 환경에서 어떻게 대해지길 바라는가?

윤리적 문제:

연구팀은 아동과 윤리에 대해 토의할 방법을 고민하며 몇 가지 문제점과 직면했다. 예를 들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연구팀이 그 방법을 어떻게 아동의 연령에 맞게 적용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주제를 소개하고 아동이 윤리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할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이를 얘기할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선택방법:

연구팀은 두 가지 방법을 개발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동 연구 그룹과 함께 만들었다. 아동이 직접 연구자와 응답자를 연기하는 몇 번의 소규모 역할놀이를 한 뒤, 어떤 행동이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인지에 대해 토의했다. 그리고 아동과 함께 윤리적 지침을 작성해 그들 스스로가 이를 책임감 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법은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방법으로 입증됐다. 아동들은 연출된 시나리오를 직접 볼 수 있고,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쁜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할놀이를 재미있게 생각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됐다. 아동은 관련된 지침이 준수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지침을 정확히 떠올릴 수 있다.

1. 그룹 앞에서 두 아동이 역할극을 한다. 그들은 상황이 묘사된 카드를 읽고 본인의 역할을 확인한다. 한 명은 연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아동은 응답자의 역할을 맡는다.

2. 두 아동은 묘사된 상황을 연기한다. (약 1분간의) 짧고 재미있는 '연극'을 연출하기 위해 어떠한 이야기도 추가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3. 연극을 마친 후 두 아동은 다시 자리에 앉는다. 먼저 이들의 멘토가 두 아동에게 연극이 어땠는지 물어본다(들뜬 감정을 진정시킨다).
4. 그리고 나서 관객들은 그들이 본 것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멘토는 연극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 연구자가 울었나요, 틀렸나요?
 - 이것이 왜 좋았나요, 혹은 나빴나요?
 - 우리가 이 짧은 연극을 보고 연구자의 행동에 대해 어떤 윤리적 지침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5. 모아진 지침들은 종이에 다시 옮겨 작성한다.
6. 그리고 또 다른 2인조 아동이 그룹 앞에서 다른 상황을 연기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 그룹 토론을 통해 윤리 문제를 논의했다. 서로에 대한 소개도 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된 후, 연구팀은 윤리에 대한 주제를 쉽게 끌어냈다. 윤리는 다른 주제보다 특별히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그룹 토론은 적절한 방법이었다. 대화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지침을 만들 수 있었다. 이후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침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계속해서 토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만일 답하지 않아도 될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 그냥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된다. (남, 13세)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연구팀이 윤리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가?
- 실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윤리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 만일 아동이 생각하는 윤리와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이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아동의 생각과 경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특히 연구자 스스로 그것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는?

이를 통해 아동 참가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아동들을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남, 13세)

참고문헌

Jurrius, K., & Uzozie, A. (2012) *If I were a researcher. Discussing ethic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msterdam: Stichting Alexander.

자료제공: Kitty Jurrius, Stichting Alexander.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